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로마서, 민수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1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로마서, 민수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말씀 위에 선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시길



최근 저는 새벽 강단을 통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습관적인 전통을 따라 가정 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오묘한 진리 위에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충현의 모든 가정들이 전통과 경험에 안주하기보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맡겨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10여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만지시고 이끌어오신 은총들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에게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될 것을 믿으면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11월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현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선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98년 11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8년 1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민수기 서문

‘민수기’의 명칭은 인구조사에 근거를 둔 것이다(1:4, 26장). 그러나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다. 즉 시내산에서부터 모압평지에 이르는 광야 40년 방황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민수기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시작하신 것을 기어코 끝맺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셨으며, 새로운 세대를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계수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된 삶의 도리를 주신 후에 이스라엘의 ‘행진을 위한 군대조직’의 기초로서 인구조사를 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한다(10:11). 이 행진은 다분히 ‘성막’을 중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나 가데스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땅을 탐지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눈은 그들을 낙담시켰고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해 그들을 정제시키신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몰아내어서 불순종의 세대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을 형성하신다. 모압평지에 도착하여 발람의 예언사건, 바알브올 사건, 두 번째 인구조사, 요르단 정착과 땅 분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아론과 미리암까지 죽게 되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이스라엘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한다. 민수기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멸하심과 동시에 2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새로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첫번째의 인구조사는 '광야행군을 앞둔' 1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시내산에서 실시했고(14장), 마지막 인구조사는 약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해 모압평지에서 실시했다(26장). 그러므로 민수기의 첫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마지막 인구조사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이다.

민수기의 내용은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장소의 흐름에 따라 구분해볼 수도 있다. 장소의 흐름에 따른 구분은 내용 흐름에서 볼 것이고,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1-21장은 1차 인구조사에서 광야방황기라고 할 수 있고, 22-25장은 모압평지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발람의 예언과 바알브올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26-36장은 신세대의 인구조사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약 5개월의 준비기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14장 34절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다.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전 10:4).

내용 흐름

- 1:1-10:10 시내산에서 : 1세대의 행군 준비
- 10:11-12:16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 애굽으로 돌아가자(38년)
- 13:1-20:13 가데스 사건 : 가나안 입성 지연
- 20:14-22:1 가데스에서 모압평지까지 : 치르어야 할 전쟁
- 22:2-36:13 모압평지에서 :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2세대를 위한 준비

『... 너희도 서로 받으라 』(15:7)

14 장 주제에 이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모든 죄인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초청하셨듯이, 모든 성도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한 몸임을 드러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적용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에 우선을 두어서는 안되며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개인으로서의 '나'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지만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로서의 천국의 소망을 공유한 형제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칭의의 목적이며, 우리의 성화의 목적이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에서 덕스러운 일치를 이루는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 각자의 특성이 지니는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야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지게 될 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5:21)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과거의 사역과 현재의 상황 및 미래의 계획까지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14, 15절), 주의 종으로서 그가 쓰임받은 사실과(16, 17절), 현실에 머물지 않고 새 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심정과(19-21절), 끝으로 선교에 있어서의 한 가지 기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전도 사역의 중심은 복음이었습니다(20절).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복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강론할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시험이 많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행 20:19-21)고 강론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어디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증거한 후에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만을 담대하게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 땅 위에 편안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능력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 갈 줄을 아노라.”(16:29)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계획에는 로마제국의 서쪽 변방이었던 서바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바나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행 1:8)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AD 57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50세 이상의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의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그렇게 멀리 수백 리 떨어진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그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현금한 구제현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25, 26절). 마지막으로 30-3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바울처럼 불모의 땅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분별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선교사님들을 붙잡으시고 지켜 주소서. ② 김성관 위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16:16)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단 사설을 전하는 악한 무리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앞의 두 절(1, 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뵈뵈를 소개하며, 3-16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뵈뵈라는 여성도와 브리스가(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개방한 부부였습니다(3, 4절). 바울은 특히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16:4).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럽의 전 지역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각 황제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이웃 사랑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6:19)

로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대한 문안 인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시 살펴본 바울은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을 덕스럽게 유지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교훈을 준 후(17-20절),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과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하고(21-24절), 축복송으로 그의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25-27절). 사도바울은 먼저 분과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시켜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복음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어 성도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마 10:16)을 연상시키는 표현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이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비밀’(26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보여졌으며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불러 일으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감추어져 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서 때가 차매 기약대로(롬 5:6)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구속자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19)

하 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광야를 거쳐 가게 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진용을 짜야 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에게서 2명의 두령을 부르신 것은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을 보여 줍니다. 보통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하신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계수된 사람입니까? 인구조사를 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기필코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합니까? 인구 조사를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전투를 준비시키는데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으러 가는 길에서 성도들은 수없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도와줄 열두 족장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옆에서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옆에서 돕는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기를 따라 진치기도 하며 ... (2:34)』

1장 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2 장에서는 전투 대형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구 조사에 이어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의 진을 배치한 데 대한 기록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잇사갈, 스불론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도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든지, 진을 치고 있을 때든지, 항상 성막이 중앙에 위치하였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과 백성들 또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만약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것입니다.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동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정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각 지파는 제각기 독특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함부로 침해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3:12)

2장 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한 진 배치를 명령하셨다면, 이제는 회막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중보자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완전하게 중보하셔서 교제하도록 만드십니다.

같은 레위 지파 내에서도 각각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 주신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것은 그 장자로 대표되는 백성들 모두를 소유하시고 부양의 책임도 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태생으로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인 나도 소유하시고 부양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거스르고 내 방식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저를 주님의 소유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3:38)

1장에서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인구를 계수하였으나 3장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레위 지파를 계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난 지 일개월 이상된 장자를 정확히 계수하고 레위인으로 대속한 다음, 남는 숫자는 속전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직무는 예수님의 직무를 예표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 자신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대신 드릴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등의 서원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재물, 마음, 몸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레위인과 속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대속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물과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림자요 모형인 레위인이나 속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단번에 완전히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어 주신 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보답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4:4)

3장 에서 레위인을 대속으로 받으시기 위한 계수를 하셨다면, 4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소의 일에 참여할 만한 자를 계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사역을 할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성물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에 관한 일을 임의로 하거나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즈음 경고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효과적인 봉사는 성숙이 요구됩니다. 미숙한 때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특별히 여러 면에서 성숙해야 하므로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준비 없이 남을 지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각각 받은 은사와 직책에 따라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고 월권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같은 일을 계속하다보면 타성에 젖고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첫사랑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용서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4:30)

본 문은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긴장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지성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휘에 따라 진행해야 되며 부주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들은 고핫 자손처럼 그 일을 할 때 요구되는 큰 긴장은 아니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각자 맡은 일들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들 가운데서 사려 깊게 육체적인 힘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30-50세까지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은 무거운 짐이 되는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뜰의 문장과 그 줄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 안의 지성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겉모양을 이루는 장막과 휘장을 거두며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골격 부분을 운반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때는 영광도 있지만 그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각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그 가족과 증족대로 계수하니 .(4:34)

레 위 자파에 속한 세 가문, 즉 고탓,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의 고유의 임무를 설명한 뒤 본문에서는 각 가문의 명수와 총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층은 30-50세의 일꾼들인데 이들은 어느 정도 혈기를 제어할 수 있는 나이이며 미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부주의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30세 이상이라는 나이의 의미는 영육간의 성숙함이 인정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50세로 상한선을 그은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봉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입니다. 이 세 가문의 전체수(22,000)의 39%에 해당하는 8,580명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문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정확한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것을 현실화시킴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정도 중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가족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인 것들을 파악할 때 하나님께 더욱 정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분명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5:2)

하 나님께서 모든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격리시키라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살이 심하게 짓무르고 털이 하얗게 되며 길을 지날 때에는 옷을 찢고 ‘불결하다’고 알람으로 문둥병 환자임을 공포해야 됩니다. 즉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출병은 일종의 성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입니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진 사람을 말하며 성경에서는 주검이란 대개 저주를 의미했으며 따라서 죄악을 상징하였습니다(창 3:19). 문둥병이나 유출병과 같은 종류의 병의 특징은 강력한 전염성인데 이것은 사람의 죄악의 전염성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병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그 병의 전염성 때문에 온 회중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기록된 병들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심령 안에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죄악과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매우 전염성이 강해 신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며 그것을 경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죄악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죄악을 경계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5:14)

하 나님의 백성들의 부부 관계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범죄하여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사람에게 탄로나지 않았어도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서 여러 의식을 통해서 부인이 순결한지 안한지를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며 이스라엘 안에서 모욕과 치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부부 사이에서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 생활은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진실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의심을 제거함으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적어도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증거를 받음으로 새롭게 가정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사람의 눈은 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지킬 때 비로소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 할 때 가정은 지켜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여 가정을 지키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찬송 / 375장 본문 / 민 6:1-21

『...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6:2)

하 나함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출 19:16).

본문 말씀에서는 나실인제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란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첫번째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에서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술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향락과 무절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실인들에게는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두번째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머리카락은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조금의 감손도 없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가 죽었을 때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시체 접촉은 의식상 죄악과 부패와의 접촉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실인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속의 쾌락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실인의 정신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의 성도들도 나실인의 정신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③ 때를 따라 흠족히 내려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6:26)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그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 주셨고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군대와같이 그들을 지켜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간구에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간구 소리를 듣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원래 광야는 공포와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위대한 복을 주셨고 언제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 구별한 날에”(7:1)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자 장막과 모든 기구, 그리고 단과 단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합니다. 이때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와 잇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나민 지파와 단 지파,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각각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번제물과 소제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 먼저 제물을 드린 것은 모범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각 지파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막을 완성하고 모든 종류의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장차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모든 제사가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물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 보시는 시각을 말해 줍니다.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즉 제물의 많고 적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제는 그 제물에 담긴 정성입니다.

이 모든 각각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가장 흠 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흠없고 완전한 제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등을 켤 때에는 ...” (8: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이 등대 앞을 비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대 앞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즉 등잔의 빛으로 하여금 성소를 비취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37절에 이미 지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을 아론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직무에 대한 일들을 구별하시기 전에 아론이 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각각의 직분과 직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직분과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과 직무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대의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여 주신 모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들을 만들 때에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직무와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의 제도를 만든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말씀에 기준하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직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8:6)

오 늘의 본문은 회막에서의 봉사를 위한 레위인들의 임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6절). 우선 그들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하나는 번제물로, 기름섞은 고운 가루는 소제물로, 수송아지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고 이들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이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날 밤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처음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피해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음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똑같이 구별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19절). 세상과 구별되는 영원한 제사장을 통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영원한 레위인이십니다.

- ▶ 기도 제목 / 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9:2)

하 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10절).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13절). 하나님께서 이토록 유월절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라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 땅의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9:16)

이 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동안 일국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그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1-14절의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맞는 유월절 기념식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를 진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성막)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15,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의 구름이 머물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도 쉼과 행진을 반복했습니다(17-22절). 그리고 거기에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23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선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약 1:4, 5-7).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한낮의 찌는 듯한 더위에서 구름 그늘로 보호하시고, 한밤의 혹한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오늘도 날마다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바를 알게 해 주십니다(요 14:26).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은나팔 둘을 만들되 …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10:2)

이 땅에는 온갖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자꾸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기도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나팔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팔은 특별히 군대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정보 전달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와 군대”(출 12:41)라고 한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막에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는 두 나팔을 함께 불었습니다(3절). 특별히 족장들만을 소집할 때는 하나의 나팔만 불어서 천부장 이상의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4절). 진들이 이동할 때는 처음 나팔을 울려 불 때 동쪽 진들이, 두번째 나팔을 울려 불 때 남쪽 진들이 이동했습니다(5, 6절). 대적을 만나 전쟁을 할 때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에 의해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변자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전체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찬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는 매우 익숙해 있었고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10:34)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광야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성을 향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주듯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서도 백성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는 언약궤입니다. 이 궤가 이스라엘 진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11:4)

법 케를 앞세우고 위세 당당하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넘는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실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불만하던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서 오는 배은망덕의 죄인 것입니다(고전 10:10).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을 삼가고(빌 2:14),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노를 받은 자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다베라의 뜻은 불태운자의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 불평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4절)로부터 시작되었고, 금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무리들의 원망에 동화되어 그들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주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내리는 “갯씨와도 같고 진주와도 같은 만나”(7절)를 먹으면서 그들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어 버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원망과 불평의 씨를 제거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내 종 모세와는 ...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12:7)

탐 욱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남기고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건을 두고 이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리암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마 7:1-5). 미리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3절)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온전치 못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라도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출 32:32). 하나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형이요 누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비방하던 사람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체의 아픔을 보고 즐기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빌 1:9-11).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열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응답하셨습니다(약 5:14-16).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 (13:18)

본 문은 가나안 정탐에 관한 기사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가나안 정탐은 백성들의 간곡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신 1:22).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의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가나안 정복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적 요구는 출애굽 1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14:26-35).

한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나안 정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탐을 통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의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하면서 가나안 거민의 강약과 다소, 땅의 호불호(好不好),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의 여부, 토지의 상태, 수목의 유무에 대해서 상세히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땅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적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할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해야 할 성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환경을 볼 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3:30)

본 문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 25-26절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이며, 27-29절은 목도한 사실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은 가나안 정복을 피력하는 갈렙의 주장이며, 31-33절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정탐꾼들의 주장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점에서는 한결 같은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비록 그 땅이 비옥하기는 하지만 그곳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덧붙임으로써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는 그들이 사물을 보는 눈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 줍니다. 결국 이들의 불신앙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했고 그들 전체를 불신앙으로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운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신앙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 줍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10명의 정탐꾼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신앙과 용기있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하지 말라 …”(14:9)

본 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의 비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을 한다면 아직 군사적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조차 전무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세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처사를 비난했으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폐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 곧 구속사적 섭리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내재된 죄와 불신앙은 전염병과같이 그 전염 속도가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전염병의 결과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듯 그들의 죄와 불신앙이 그들을 멸망으로 몰고가는 채찍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신앙이 인간에게서 용기와 확신을 소멸하며 인간을 원망과 불평의 노예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게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비굴한 자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은 전염병과 같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 』(14:17)

본 문은 반역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11, 12절)와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애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13-19절)에 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의 선하신 목적을 실현하고자 그들을 애급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리고 애급으로 돌아가려는 반역을 자행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제안 하셨습니다(11, 12절). 이것은 과거 금송아지 숭배사건시(출 32:10)에 이은 두번째 제안으로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여 줍니다.

한편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및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믿음에 기초해서 백성들이 용서받고 존속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13-19절). 이러한 모세의 자세는 그가 신앙적으로 놀랍도록 성숙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잘 보여 줍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뚜렷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 결단코 보지 못할 ...”(14:22-23)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치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20절).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제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도 40년간 유보하시겠다는 처벌을 내리셨습니다(20-35절). 아울러 불신앙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처분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며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고백외에도 옛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동반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11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12월에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특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저물어가는 98년을 잘 정리하게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 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서문(행 1:1-2)에서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눅 1:3).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눅 1:2) 굳이 누가가 복음서를 또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그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대답합니다(눅 1:4).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행정부의 고위관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듣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누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요 흐름

- 1:1-4:13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서론적 소개
 1:5-56 예수님 탄생 이전
 1:57-2:38 예수님의 탄생
 2:39-52 예수님의 어린시절
 3:1-4:13 예수님 공생애 이전
- 4:14-9:50 인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4:14-30 예수님의 출현
 4:31-5:28 예수님의 권세
 5:29-6:49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설명
 7:1-9:50 예수님 사역의 확장
- 9:51-19:27 인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 19:28-24:53 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

제 1 과

누가복음(1) 초대받은 사람들

찬 송 / 34장
읽을 말씀 / 1-6장
공부할 말씀 / 2:8-20

먼저 읽기

생활하다보면 잔치를 준비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잔치는 자유롭기도 하지만 어떤 잔치는 형식을 갖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잔치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보면 알 수 있고, 초대시간이나 초청장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대하는가'를 보면 그 잔치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준비하는 잔치에 훌륭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새 생명이 탄생하는 날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특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날은 말로 다할 수 없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특별하지 못한 사람들, 훌륭한 자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8-9절)
2. 천사가 그들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10-11절)
3.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13-14절)
4.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은 어떻게 했나요?(15-17절, 2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당시, '목자'들은 매우 천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둑질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고,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도무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자로 분류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중요한 그 날, 다른 누구도 초대하지 않고 바로 이 목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현대의 목자들'을 찾으신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 땅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면서 논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순진하게 믿고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단순한 순종'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근심이 많아서 주저할 뿐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2 과

누가복음(2)

예수님이 기이히 여기신 믿음

찬 송 / 344장

읽을 말씀 / 7-12장

공부할 말씀 / 7:1-10

먼저 읽기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은총에 놀라고 감격해 합니다. 그 한결같이시고 신실하신 은총과 사랑에 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놀라면 놀랐지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 놀라신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래킨 한 이방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서 놀라셔서 입을 다물지 못하신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가버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2절)

2.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3절)

3. 백부장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백부장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습니까?(4-5절)

4.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백부장은 누구를 보내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6-8절)

5.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9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백부장은 하인의 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한 힘은 자기 하인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동정, 사랑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 이러한 관심을 베푸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소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대상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면에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집에 들어오심도,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감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명쾌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에 걸맞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 사이에 말할 수 없이 깊고 깊은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감당 못할 은총에 눈물흘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예수님을 적당히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믿음 생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 3 과

누가복음(3)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찬 송 / 197장
읽을 말씀 / 13-18장
공부할 말씀 / 13:1-9

먼저 읽기

우리 주변에서는 불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스가 폭발하여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천재니 인재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단순논리가 우리들 머리 속에 여전히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1-5절을 읽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세요.

1) 두어 사람이 들고나온 사건이야기와 예수님이 예로 드신 사건은 무엇인가요?

2) 그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3)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리신 결론과 관련하여 예화로 드신 비유는 무엇입니까?(6-9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는 종종 나의 불행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진정한 실패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나 좌절이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근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태도들이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고백과 서로를 위한 중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이 덧붙이신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단 한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하는 실수와 잘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또 회복할 기회가 있을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 기회가 마감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맺지 못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치고 있지 못한 나쁜 생각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제 4 과

누가복음(4)

예수님과 삭개오

찬 송 / 497장

읽을 말씀 / 19-24장

공부할 말씀 / 19:1-10

먼저 읽기

어떤 일을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일을 평생의 일로 삼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배제된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요청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앞세워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본문은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2절)

2.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3-4절)

3. 뽕나무 아래 멈추어 서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5절)

4. 그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과 결단은 어떠했습니까?(6절, 8절)

5.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7절)

6.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습니다까?(9-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가 잘 알 듯이 삭개오의 직업은 소위 '허가받은 도둑',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기꾼'으로 알려진 세리였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는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싫어하여, 혹은 그가 격렬하게 거부할까봐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2. 비록 불의하게 벌었다고 할지라도, 부자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의 네 배를 갚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킨 젊은 부자 관원은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섰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고백했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 과

승리의 확신

찬 송 / 395장
암송할 말씀 / 고전 10:13

목 상

고린도전서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당함만을 허락하십니까?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에 대한 나의 점검

3.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신앙 생활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시험당할 때, 시험당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 아니오 모름

2) 당신은 시험당할 때, 기도합니까?

예 아니오 모름

3) 당신은 시험당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4) 당신은 시험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5) 당신은 시험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주신다고 믿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6) 당신은 시험당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예 아니오 모름

7) 당신은 시험당할 때, 긍정적이 됩니까? 혹은 부정적이 됩니까?

긍정적 부정적 모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

4. 신자들도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당한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5.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6. 우리들이 보통 당하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입니까?
참고 성경 구절 / 요일 2:16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

7.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미쁘신 분입니까?
참고 /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8.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 성경 구절 / 욥 1:12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9.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0. 이 피할 길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참고 성경 구절 / 시 46:5

11. 이 피할 길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적 용

12. 최근에 당한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거나 혹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특히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